

『남명집』에 나타난 남명의 실천사상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주는 함의

최정혜*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태도 정립을 위하여 우리전통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대학자이며 경남지역의 정신적 지주인 남명의 실천 사상을 재조명하여 부모양육태도와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명의 경의사상을 통한 실천은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적용에 있어, 부모가 아동에게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잘 조절하여 자기 통제력이 발달되도록 양육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남명의 일상생활을 통한 실천은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적용에 있어, 하학상달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기의 인지발달 단계와도 일맥상통했다. 또한 부모는 아동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교육, 타인배려의 공동체교육 등 기본교육 강화를 적용할 수 있다,

셋째, 남명의 마음 수양을 통한 실천은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적용에 있어, 화, 향, 직, 방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남명의 실천 사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아동양육태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주제어: 남명, 남명집, 실천사상,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I. 머리말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연이어 나타나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부모의 올바른 자녀 양육태도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김세원, 2014; 오경희, 2013). 부모의 아동학대 증가 현상과 관련하여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16.8%가 늘어나서(경남일보, 2016. 4.12.),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동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태도와 함께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부모가 먼저 올바른 가치관으로 양육태도를 보여줄 때 자녀들도 좋은 인성으로 자라날 수 있다. 아동의 인성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에서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보건복지부, 2013) 유아교육 교사의 성품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서현, 임지윤, 박미자, 2013) 사실 아동들의 인성은 유아교사의 영향에 앞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아동들의 좋은 품성교육을 위해서는 아동을 일차적으로 훈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들의 양육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동기는 아동이 유능한 사회시민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 아동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부모의 양육아래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등을 경험하는데(김이영, 2015; 우덕례, 2014; Olson, Lopez-Duran, Chang & Sameroff, 2011), 이 시기에 부적절한 부모양육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들은 심리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어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권정윤, 김은희, 2010; Ramani, Brownell, & Cambell, 2010). 따라서 아동기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에 아동양육에 있어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단순한 양적 증가보다는 아버지와 아동 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Lamb & Tamis-LeMonda, 2004; Parke, 2000).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적,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석원, 이대균, 2014; 최미숙, 송순옥, 2014; 최예린, 2011;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5; Wilson & Prior, 2011; Cox, Owen, Henderson, & Margand, 1992).

비록 그동안 절대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어머니의 양육참여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아버지의 양육태도 연구 역시 중요하다(양진희, 2015; 최정혜,

2016; 최효식, 연은모, 2014).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아버지의 아동양육 참여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많은 부분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어머니 위주로 아동양육이 이루어져오다가 최근에 들어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이 다시 재인식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대학자로 살아온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로서의 자녀교육관을 살펴보는 것은 현대를 사는 아버지들에게 부모로서 자녀양육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경남지역에는 조선시대 후기에 실천적 교육을 강조한 남명의 사상이 큰 주류로서 내려오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대학자로서 당시 성리학이 공리공론으로 흐르는 경향을 바로잡고자 경의(敬義)에 바탕을 둔 실천위주의 학문을 제창하였고, 유학자이면서도 독특한 학풍을 형성하였다. 남명의 정신세계가 담긴 『南冥集』은 선생의 실천적 교육관을 오늘날에 재현시킬 수 있어(남명학, 2001), 현대를 사는 부모들의 아동양육태도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남명의 핵심사상이 드러나 있는 『남명집』을 통해 남명의 실천사상을 재조명하면서 부모양육태도와의 접목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올바른 자녀양육 지침을 원하는 현대부모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남명의 실천적 교육관과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1. 남명의 실천 사상과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남명의 실천적 교육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남명사상의 본질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명의 성리사상은 한마디로 수양론에 치중해 있다. 즉 성리(性理)에 관한 여러 이론을 전개하기 보다는 자신의 심성을 어떻게 하면 잘 수양해 덕성을 함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선생은 「신명사도」를 그려 심성수양의 요점을 도식화하였는데, 그 핵심이 敬을 통한 내적 존양, 義를 척도로 하는 외적 성찰, 그리고 사욕이 일어나는 것을 삼엄한 기상으로 살펴 사욕이 생기면 즉석에서 물리치는 극치, 이렇게 3단계 수양론을 강조하였다.

이런 수양과정을 거쳐 극기복례(克己復禮), 한사존성(閑邪存誠)의 지어지선(止於至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남명의 평생 목표였다. 남명은 16세기 성리학이 한창 꽃을 피우던 시기에 형이상학적인 문제에만 몰두해 이론적인 탐구만 일삼는 풍조를 반대하고 ‘아래로 인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위로 천리에 통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일상생활의 쉽고 가까운 것부터 차례차례 배워 올라가는 실천적 학문을 역설하였다. 남명은 이런 정신에 입각해 『소학』과 『사서』를 매우 중시했으며, 일상에 긴요한 말이 있으면 세 번 반복한

뒤에 기록해 두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학기(學期)이다.

남명의 이러한 실천적 교육관점을 부모의 아동양육으로 연결해 보면, 아동기는 아동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모든 행동을 모방하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다. 부모가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쉽고 가까운 것부터 차례차례 배워 올라간다는 남명의 실천적 교육관을 적용한다면 아동들은 이러한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할 것이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자녀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아동은 한 번의 훈련으로 행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학습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명의 ‘학기’는 실천적 아동양육방법으로서 꼭 필요한 교육방법이라 하겠다.

남명의 학문적 특성은 敬과 義로 대표된다. 경은 송 대 학자들이 강조한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모두 중시하였으나, 남명은 경과 아울러 의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는 선생의 성리사상이 수양론에 치중해 있다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체로 성리학자들은 義를 敬속에 포함시켜 보다 근원적인 敬만을 내세웠는데, 선생은 이 둘을 해와 달에 비유하여,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과 밖으로 일을 처리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즉 정시(靜時)와 동시(動時)의 수양을 나누어, 외적 수양을 내적 수양과 동등하게 보았으며, 이는 경의점에 ‘마음을 밝히는 것은 敬이고, 밖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義다’라는 문구를 새긴 데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를 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드러내 두 축으로 내세운 것은 내적 존양과 함께 외적 성찰을 중시한 것으로, 이 성찰을 단순히 의리를 강명하는 궁리의 일로 보지 않고, 범위를 넓혀보면 마음이 발동하여 응사접물(應事接物)하는 모든 외적인 일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성찰을 현실사회의 일을 성찰하는 쪽으로 외연을 확대하면, 의와 불의를 냉철히 살피게 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비판정신이 생기게 될 것이다.

경은 내적 수양을 통한 마음의 함양이며(장덕삼, 2000; 허권수, 2001), 敬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心の 조절, 통제의 중요성으로 연결된다. 즉 敬의 사상에 입각한 교육관은 인간 내면의 상태를 가지 있고 바람직하게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이를 아동기 부모양육태도에 적용하면, 아동이 3-4세 때부터 자기마음을 조절하는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훈육 지도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즉 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올바르게 거하고 뜻을 성실하고 바르게 하며, 예를 행하고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를 수 있도록(채휘균, 1999), 부모가 모범을 보이며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義의 사상은 진덕(進德), 박문(博文), 격치(格致), 지지(知止), 택선(擇善), 명선(明善), 진심(盡心), 지성(知性) 등이다(남명학, 2001). 즉 義의 사상에 입각한 교육관은 외적 성찰을 중시하여 의와 불의를 냉철히 살피게 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덕으로 나아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이를 아동기 부모양육태도에 적용하면, 부모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피아제 이론에 따른 아동의 도덕성 발달은 4세에서 7세경사이에 타율적 도덕성이 발달되는데 이 때 아동은 규칙은 신이나 부모와 같은 권위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이 올바른 판단으로 선을 택하고 그에 따른 성실한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요컨대 남명선생의 실천 사상은 거경행의(居敬行義)를 바탕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에 있다. 실천을 강조하는 敬義사상은 敬이 학문의 근본이면서 내면세계를 바로하기 위한 것이라면, 義는 외부세계의 일을 행하는 실천덕목이다(김세철, 2007; 장덕삼, 2002; 허권수, 2001). 따라서 부모양육태도에서 부모는 아동에게 먼저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여 자기통제력이 잘 발달되도록 교육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선한 행동으로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남명의 실천적 교육방법과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남명은 당시의 학문이 성명(性命), 이기(理氣), 사칠(四七) 등 형이상학적인 명제의 탐구에 골몰해 성리학 본연의 심성 수양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궁리과정을 거쳐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敬, 義 교육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방법은 하학상달의 방법, 결단적 방법, 교학상장의 방법, 상징적 사물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었다(사재명, 2005; 채취균, 1999, 2001).

이러한 남명의 교육방법*을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명이 가장 중요시한 교육방법은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의 진학이다. 이는 교육함에 있어 하학의 실천에서 상달로 나갈 것을 제안했는데,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해보면, 아동이 일상생활주변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단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둘째, 남명은 개개인의 능력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방법을 주장하였다. 이는 부모가 아동이 가진 소질과 잠재력을 고려하되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셋째, 남명은 학습에 있어 도해교육에 의한 시각적인 직관교수방법을 도입하였다. 성리학에 관련된 이론을 도해로 표현한 「학기도」(이승환, 2012)는 직관교수의 방법적 원리로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이르게 하는 교육방법이다. 이를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해보면, 부모가 아동에게 일상생활의 단순한 생활지혜에서 시작하여 이해력이 필요한 복잡한 상황 이해로 나아가게 하고,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에서 추상

* 사재명(2000). 148면; 김영숙(2015), 109-136면.

적인 학습으로 안내하며, 아동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확장하여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게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넷째, 남명의 교학상장(사재명, 2002; 한상규, 2001, 2006, 허권수, 2005)의 방법이다. 이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상호 성장한다는 의미로서 가르침에 있어 단순하게 지적인 차원이 아닌 智와 行이 통합되어 개인 내면과 행실의 가치로움을 지향하여 상호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을 지도하는 부모 역시 아동의 내면과 도덕적 행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상호작용하며 이끌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남명의 경의교육을 위해 상징적 사물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남명은 평소 생활에서 소중하게 지니고 있던 칼에 “내명자경, 외단자의”라고 새겨두거나 몸에 성성자라는 방울을 항상 휴대하여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을 일깨워 敬과 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는데, 이는 경의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를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해 보면, 부모가 아동의 마음 조절이나 도덕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림책이나 관련 장난감 교구 등을 제공하여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정신을 염두에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Ⅲ. 『남명집』에 나타난 실천 사상과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남명집』에 나타난 남명의 실천 사상을 경의사상을 통한 실천,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한 실천, 마음수양을 통한 실천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의사상을 통한 실천과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남명의 핵심사상인 경의에 대해 ‘패검명’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敬)’이요,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은 ‘의(義)’다(남명집, 銘, p.16).

남명의 경의사상에서 경이 내면세계를 바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는 외부세계의 여러 일을 처리하기 위한 실천 덕목을 말한다.

첫째, 경을 통한 실천을 살펴보면, 경은 의식의 각성과 정신 집중으로 요약되는데 남명이 ‘송과자에게 보낸 글’에서 학문하는 사람이 경을 공부해야 됨을 나타내고 있다.

『남명집』에 나타난 남명의 실천사상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주는 함의

경은 성학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것으로, 초학자로부터 성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을 주로 하는 것으로 도에 나아가는 방안을 삼습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길 “학문하는 도는 다른 것이 없다. 놓아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뿐이다”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경을 주로 하는 공부입니다(남명집, 書, pp.234-235).

또한 ‘원천부’에서도 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물욕의 감정에 빠져버리면 근본이 없어지며,
물욕의 감정에 흔들리면 쓰임이 없어지리라.
경을 통하여 그 근원을 함양하고,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하리라(남명집, 賦, p. 153).

‘신명사명’에서도 경을 통하여 마음수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사악한 마음을 막아 정신을 보존하며,
언어의 표현을 가다듬어 정성스런 마음을 세우라.
정밀하고 한결같은 경지를 추구하려거든,
경을 통하여 들어가라(남명집, 銘, p.172).

또한 ‘무진년에 올리는 봉사’에서도 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임금이 그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으며, 가슴속에 본심을 보존하고 밖으로 자신의 행동을 살피는 가장 큰 공부는 곧 반드시 경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이른바 경이란 것은 정제하고 엄숙히 하여, 항상 마음을 깨우쳐서 어둡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른바, “경으로써 몸을 닦는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남명집, 疏, pp.320-321).

이처럼 ‘경을 통한 실천’은 의식의 각성으로 학문에 근거하여 수양덕목으로 삼았을 때, 매사에 어긋남이 없으며, 안으로 마음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의를 통한 실천이다. 남명은 의를 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드러내 내적 존양과 함께 외적 성찰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남명이 ‘석천자에게 준다’에서 표현한 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등교육연구 제28집 (2016년), pp. 135-155.

비록 굶주려도 한 말을 어기질 않으니,
사람들 사이에서 말썽이 없도다.
그대의 현명하고 안온한 훈계 높게 치나니,
사무치는 그리움 풀길이 없네(남명집, 詩, p.141).

또한 ‘신언명’에 나타난 의에서 말조심을 하도록 하고 있다.

언어의 표현을 다듬어 정성을 세우고,
병마개를 단듯 입을 단아 말을 조심하라.
문제는 게으르고 소홀한데 있으니
충신을 주로해서 완성하라(남명집, 銘, pp. 175-176).

이처럼 남명은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절제로 일관하여 ‘의를 통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오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선비들의 행실이 공평하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훈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대는 요즘의 선비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행실을 공평히 살펴보면 도리어 무지한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꾸지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습니다.....모두 의로써 헤아리기에 달려있습니다(남명집, 書, p.195-197).

또한 남명은 ‘정묘년에 사직하면서 승정원에 올린 상소문’을 통해 올바른 것을 따르고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의를 드러내고 있다.

신이 엿드려 보니....나라의 근본은 쪼개지고, 물이 끓듯 불이 타듯하고, 여러 신하들은 거칠고 게을러서 시동같고 허수아비 같습니다...선비의 습속이 온통 허물어졌고, 공정한 도리가 없어졌으며....뇌물을 주고 받음이 극도에 달했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풍조가 극도에 달해 백성들의 원통함이 극도에 달했고.....청하옵건대 일의 완급과 허실을 다시금 분간해서 처리하시옵소서(남명집, 疏, pp. 319-320).

한편 남명의 이러한 경의를 통한 실천사상을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해 보면, 부모는 敬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 통제력을 길러

『남명집』에 나타난 남명의 실천사상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주는 함의

주어야 하며, 올바름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고, 예의를 알도록 부모가 표양을 보이며, 마음을 선하게 밝힐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함을 알 수 있다. 義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올바른 이치를 깨달아 행동할 수 있도록 도덕성을 길러주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요컨대 남명의 경의사상은 먼저 개인 내면의 수양에 초점을 두면서, 다음으로 개인이 사물이나 상황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궁리하고 깨달아 지속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인격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에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잘 조절하여 자기통제력이 잘 발달되도록 양육하며, 나아가 행동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선한 행동으로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한 실천과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남명은 당시 성리학에서 이론적인 탐구만 일삼는 풍조를 반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고 가까운 것부터 배워 올라가야한다는 논리로서 실천적 학문을 역설하였으며, 일상경험을 통하여 기본부터 차례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방법으로 실천공행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남명의 일상생활 경험을 통한 실천은 크게 교육방법 강조와 기본교육 중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일상생활 경험을 통한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명의 핵심사상인 ‘신명사명’에서 일상생활 경험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 공부의 첫 번째 단계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명덕을 밝히는 첫 번째 공부이다. 총체이다(남명집, 銘, pp.164-165).

남명은 ‘퇴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쇠소옹대, 즉 물 뿌려 쓸고 사람을 응대하는 일상생활 경험을 통한 교육방법을 중요하게 실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흠쳐서 남들을 속이려하고 있습니다....선생같은 분은 몸소 상등의 경지에 도달하여 우러르는 사람이 참으로 많으니, 십분 억제하고 타이르심이 어떻겠습니까?(남명집, 書, p. 181).

‘원천부’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궁구하는 것이 학문의 근원이 됨을 기

술하고 있다.

미루어보건대, 물이 웅덩이를 채우고 난 뒤에 흘러가니,
평소에 덕행을 쌓는 것이 마땅하리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궁구함이
오묘한 이치에 도달하는 근본이 된다(남명집, 賦, pp.150-151).

이처럼 남명은 모든 일에 터전이 있음을 알고 일상생활의 아주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는 방법적 논리를 중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명은 일상생활의 기본교육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성리학적 수양을 위해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의 순리로 나아가는 실천방법을 설명하였는데, 그는 벗 ‘이원길’이 선물한 『심경』을 받은 후에 쓴 글에서 이러한 실천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항상 스스로 경계하여, “언행을 신의 있게 하고 삼가며, 사악함을 막고 정성을 보존하라. 산처럼 우뚝하고 못처럼 깊으면, 움트는 봄날처럼 빛나고 빛나리라” 라는 말을 벽위에 써서 걸어두었으나, 마음은 늘 초나라와 월나라 사이처럼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이 책이 아마 마음을 죽지 않게 하는 약이리라. 아침저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기를 스스로 마지않을 것이다. 노력하여 게으르지 않도록 하라. 안자와 같이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남명집, 跋 . pp.258-259).

또한 남명이 ‘오자강에게 보낸 편지’와 ‘송파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문을 함에 있어 책을 읽는 순서가 중요하며, 그 순서는 하학에서 상달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로 사문의 종장인 사람이 오로지 상달만 주로 하고, 하학을 궁구하지 않아 구제하기 어려운 습속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그와 더불어 서신을 왕복하며 논란을 했지만, 돌아보려하지 않았습시다. 공은 지금 이 폐단을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남명집, 書, pp. 211).

학문하는 사람들이 사서를 정독하고 숙독하여 진리가 쌓이고 힘이 오래 되면, 도의 상달치를 알 수 있어 『주역』을 궁구하는 것이 거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정독하기만 하고 숙독하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고, 숙독만 하고 정독하지 않으면 또한 도를 알 수

『남명집』에 나타난 남명의 실천사상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주는 함의

없습니다. 정독하고 숙독하는 것이 모두 지극해야 골자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은 여러 경전의 강령이니, 모름지기 『대학』을 읽어서 훤히 꿰뚫어 알게 되면 다른 글을 보기가 쉬워질 것입니다(남명집, 書, p.234).

주자는 말씀하기를 “내가 평생 정력을 기울일 것이 모두 『대학』에 있었다”고 하였고, 정자는 말씀하기를 “『논어』와 『맹자』를 온전히 공부하고 나면 『육경』은 배우지 않아도 밝아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글을 널리 보는 공부는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남명집, 書, p.235).

남명은 『사서』를 읽은 후에 『주역』을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이치를 깨칠 수 있고, 『논어』와 『맹자』를 공부하면 『육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하학 후에 상달하는 학문의 기본 순서를 중요하게 여겼다.

한편 남명의 일상생활 경험을 통한 실천 사상을 교육방법 강조와 기본교육 중시로 강조한 것을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상생활을 통한 실천으로서의 교육방법 강조와 관련해서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한 후에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 한다’는 단계적 학습법을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상생활 경험하게 할 때, 아동에게 먼저 경험하게 한 후 일어나는 의문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다시 사물의 이치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단계로 안내한다. 특히 아동은 인지발달 수준에서 피아제의 전조작기에 해당되어 2세부터 4세까지의 전개념적 사고기를 거쳐, 4세에서 7세까지의 직관적 사고기로 발달하므로 부모가 아동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가르칠 때에도 하학상달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남명의 하학상달의 원리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쇄소옹대’의 원리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먼저 한 후 학문을 하는 것으로써 부모가 아동양육을 함에 있어 학습보다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하여 아동에게 많은 체험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학습지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남명의 일상생활의 기본교육 실천과 관련해서 부모가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하면, 아동에게 기초적인 일상생활의 기본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아동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교육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교육,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 선한 마음 등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책을 읽을 때에도 처음에는 아동의 수준에 맞는 쉬운 동화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

단계를 높여가는 하학상달의 교육을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양육태도에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가 지도하는 아동의 학습경험은 대부분 일상생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남명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한 교육방법 실천과 기본교육 강화는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 하겠다.

3. 마음 수양을 통한 실천과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남명은 사람이 물욕에 끌리고 사사로운 정에 방종하면 본심을 잃기 때문에 마음 수양이 중요하며, 이 마음은 경으로써 수양하고 의로써 성찰해야 됨을 주장하였다. 남명의 '마음 수양을 통한 실천'은 '사욕 극복을 통한 실천'과 '자기 성찰을 통한 실천'으로 나누어진다 (장영준, 1990).

먼저 마음 수양을 통한 실천을 위해 '사욕 극복을 위한 실천'은 다음과 같다. 남명은 마음을 가다듬어 근본을 다스리면 물욕에 휘둘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옳은 이치를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속의 명리를 탐하는 마음이 넘치면 사욕의 경계가 허물어져 염치가 없게 되므로 '사욕 극복을 통한 실천'을 보일 것을 강조하였다.

남명은 '원천부'와 '좌우명', '신명사명' 등에서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학문으로 근본을 삼으면,
물욕의 감정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물욕의 감정에 빠져버리면 근본이 없어지며,
물욕의 감정에 흔들이면 쓰임이 없어지리라.
경을 통하여 그 근원을 함양하고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한다(남명집, 賦, pp. 152-153).

언행을 신의 있게 하고 삼가며,
사악함을 막고 정성을 보존하라.
산처럼 우뚝하고 못처럼 깊으면,
옴 돌는 봄날처럼 빛나고 빛나리라(남명집, 銘, p. 161).

사악함을 막으면 마음이 한결같아지고, 사욕이 없으면 마음이 한결같아진다. 예의는 반드시 태일에 근본해야 한다. 사악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그 법칙이니, 충효로써 섬겨야 한다 (남명집, 銘, p. 162).

『남명집』에 나타난 남명의 실천사상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주는 함의

이처럼 남명은 자신의 사악함을 막고 사욕이 없도록 마음을 잘 잡아 세상에 대응하면 물욕을 억제할 수 있으며 물욕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학문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신명사명’에서 사람 마음의 사악한 욕심은 특히 세 요처 즉, 귀, 눈, 입에서 비롯됨을 나타내고, 선악이 갈라지는 그 순간을 잘 살펴 이겨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아홉 구멍의 사악함도

세 군데 요처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낌새가 있자마자 용감하게 이겨내고

사악함을 막는 것이다(남명집 賦, pp. 168-169).

다음으로 마음 수양을 통한 실천을 위해 ‘자기 성찰을 통한 실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명은 ‘신명사명’에서 자기 성찰을 통한 실천을 화, 향, 직, 방으로 나타내고 있다.

네 글자의 부절을 발부하고, 화(和), 향(恒), 직(直), 방(方)이다. 예의 쓰임은 화가 귀하니, 화는 절도에 맞는 것이며, 언행을 항상 신의 있게 하고 삼가는 것이 향이니, 향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조심함이 직이며, 자로 잰 듯이 행동함이 방이다(남명집, 銘, p. 166).

또한 남명은 자신의 아픈 몸을 위해 약재가 필요하여 ‘신송계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처음에는 영의정인 친구에게 자신의 약재를 부탁하려다가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기성찰을 통한 실천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처음에는 원길에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내 한 몸의 병이 이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남에게 관청의 약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감히 하지 못할 일입니다. 원길을 보거든 안부나 잘 전해 주십시오(남명집, 書, p. 191).

또한 남명이 ‘규암이 선물한 『대학』 책갑 안에 씌’의 내용에도 내면의 자아를 성찰하며 반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애초에 타고난 자질이 매우 둔한데다 스승과 벗들의 규제도 없어서, 오직 남에게 오만한 것으로 고상함을 삼았다. 사람에게만 오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오만한 마음이 있어서....사람됨이 가벼워 진실 되지 못하고, 호쾌히 휘파람을 불기도 하며 팔

을 견어붙이기도 하였으며, 항상 세상사를 잊고 살 듯 한 기상이 있었다...날마다 소인이 되는 쪽으로 달려가면서도 스스로 모르고 있었다(남명집, 跋, p.253).

또 남명은 『성리대전』을 읽다가 자신을 통렬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나아가 벼슬해도 하는 일이 없고 물러나 은거하면서도 지키는 것이 없다면, 뜻하고 배운들 무엇 하겠는가?” 라고 한 말을 보고서 흠칫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위축되어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배운 것이 형편없어 거의 일생을 그르칠 뻔 한 것과, 애초에 인륜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일들이 모두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 인줄 몰랐던 것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였다(남명집, 跋, p.254).

즉 남명은 『성리대전』을 통해, 과거를 포기하고 은거한 자신의 모습을 깊이 통찰하고 성숙한 내면의 깨우침으로 은거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일들이 모두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를 정화시켜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강조한다.

한편 남명의 ‘마음 수양을 통한 실천’을 ‘사욕 극복을 통한 실천’과 ‘자기 성찰을 통한 실천’으로 나누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욕 극복을 통한 실천’과 관련해서 부모의 아동양육태도를 적용하면,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 부모가 대응하는 태도로서 아동의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고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도록 부모가 양육해야 하겠다.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에는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잘못된 마음을 극복하고 진실 된 마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한 실천’을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하면, 화, 향, 직, 방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겠다. 먼저 화는 조화로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상생활에서 때를 쓰는 경우 잘 타일러 올바른 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훈육할 수 있다. 향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항상 책임을 지도록 양육하고, 좋은 결과를 보였을 때는 부모가 격려해 주어 아동의 좋은 행동이 계속되도록 한다. 직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아동을 눈여겨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동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하며, 방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반듯한 행동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훈육해 주어야 하겠다.

물론 이 모든 훈육이 자녀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은 부모의 행동을 반영하므로 부모가 내면의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으로 살면 자녀들 또한 무

의식적으로 본받게 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부모들이 자아성찰이나, 신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중심의 나 홀로 선행학습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교육 현장이나 사회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 우선한다. 따라서 남명의 ‘마음 수양을 통한 실천’을 부모들이 아동양육방법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사회의 아동과 학부모도 훨씬 더 성숙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음말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증가되고 있는 부모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태도의 해법을 위하여, 조선시대 사상가이며 대학자인 남명의 실천 사상을 재조명하여 그 사상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주는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남명집』에 나타난 남명의 실천사상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는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올바른 자녀양육태도 지침을 원하는 현대부모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본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주요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명의 경의사상을 통한 실천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주는 함의이다. 남명의 핵심사상인 경의 실천에서, ‘경을 통한 실천’은 내면세계를 바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근본은 학문에 근거하였고, ‘의를 통한 실천’은 외부세계의 일을 처리하는 실천 덕목으로 행동의 결단을 통해 학문을 더욱 실천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논거가 되었다. 특히 남명은 의가 경에 종속되지 않고 경과 의를 동등하게 보면서 의의 실천을 강조한 점이 독창적이다.

이러한 남명의 ‘경을 통한 실천사상’을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해 보면, 부모는 敬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어야 하고, 올바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예의를 알도록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마음을 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함을 알 수 있다. 義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올바른 이치를 깨달아 행동할 수 있도록 도덕성을 길러주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양육하고,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하겠다.

둘째, 남명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한 실천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주는 함의이다. 남명은 일상생활에서 쉽고 가까운 것부터 배워 올라가야한다는 논리를 펴 실천적 학문을 역설하였다. 그는 일상경험을 통하여 기본부터 차례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방법으로서 이론을 넘어 실천궁행을 강조하였는데, 일상생활 경험을 통한 실천 사상에서 교육방법 강조와 기본교육 중시로 강조한 것을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명은 ‘일상생활을 통한 실천’으로서의 교육방법 강조와 관련해서 ‘배우고 묻고, 생

각하고 분별한 후에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 한다'는 단계적 학습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아동에게 일상생활 경험을 학습하게 할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먼저 일상생활을 경험하게 한 후 일어나는 의문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다시 사물의 이치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단계로 연결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은 인지발달 수준에서 전개념적 사고기에서 직관적 사고기 순으로 발달하므로 부모가 아동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험 학습을 가르칠 때에 하학상달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즉 남명의 하학상달의 원리는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와도 일맥상통 한다. 또한 남명의 '쇄소응대'의 원리 역시 일상생활의 경험을 먼저하고 학문을 하는 것으로, 부모가 아동양육에 있어 학습보다는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한 후,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지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부모의 아동양육태도로서 적합하게 보인다.

다음으로 남명의 일상생활의 기본교육 실천과 관련해서 부모가 아동에게 기초적인 일상생활의 기본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교육,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교육,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 선한 마음 등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자녀에게 책을 읽게 할 때에도 처음에는 아동의 수준에 맞는 쉬운 동화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 단계를 높여가는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서 부모가 지도하는 아동의 학습경험은 대부분 일상생활 경험을 먼저 한 후에 이루어지므로 남명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한 교육방법 실천과 기본교육 강화는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셋째, 남명의 '마음 수양을 통한 실천'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주는 함의이다. 남명은 사람이 물욕에 끌리고 사사로운 정에 방종하면 본심을 잃기 때문에 마음 수양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남명의 '마음 수양을 통한 실천'은 '사욕 극복을 통한 실천'과 '자기 성찰을 통한 실천'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욕 극복을 통한 실천'은 사욕의 감정이 마음을 흔들면 근본이 없어짐을 강조하며, 그 근본은 학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한 실천'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끄럽고 위축된 면을 자각하고, 성숙한 깨우침으로 인륜을 실천하는 중요한 본분을 찾으려면서 현실을 반성하는 실천인 것으로 보았다.

남명의 이러한 실천을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욕 극복을 통한 실천'과 관련해서 부모는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 부모가 대응하는 태도가 해당된다. 즉 아동의 잘못된 행동은 부정적인 마음과 관련되므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도록 부모가 양육해야 한다.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표출하게 되는 이면에는 어떤 목적들이 있다. 아동들은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거나 소속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행동, 부정적인 행동으로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즉 부당한 관심끝기나 힘 행사하기, 양갈음하기, 무능함 보이기 등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나타내는데, 아동이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잘못된 마음을 극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 성찰을 통한 실천’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아동양육태도에 있어 화, 항, 직, 방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화는 조화로써, 부모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상생활에서 때를 쓰는 경우 잘 타일러 올바른 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훈육할 수 있다. 항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항상 책임을 지도록 양육하고, 좋은 결과를 보였을 때는 부모가 격려해 주어 아동의 좋은 행동이 계속되도록 한다. 직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아동을 눈여겨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동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하며, 방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반듯한 행동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훈육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남명의 ‘마음 수양을 위한 실천’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아동양육태도에서 이 실천 사상을 잘 적용할 때 자녀를 훨씬 더 성숙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명의 실천사상은 경의사상을 통한 실천, 일상생활을 통한 실천, 마음수양을 통한 실천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남명의 실천사상은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경의사상을 통한 실천은, 부모가 아동에게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잘 조절하여 자기 통제력이 발달되도록 양육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의 행동에 있어서 올바르고 도덕적인 선한 행동으로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일상생활을 통한 실천은, 부모가 아동에게 일상생활 경험을 학습시킬 때 하학상달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기의 인지발달 단계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부모는 아동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교육, 타인배려의 공동체교육 등 기본교육 강화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셋째, 마음 수양을 통한 실천은, 부모가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도록 화, 항, 직, 방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자녀양육에 있어 가치관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현대 부모들의 자녀양육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남명의 실천 사상을 향후 부모의 청소년 양육태도에 주는 함의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의 교육관을 고찰하여 현대사회의 부모들의 자녀교육관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교육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보건복지부.

중등교육연구 제28집 (2016년), pp. 135-155.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권정윤, 김은희(2010), 「통제적인 어머니의 놀이상호작용과 유아의 반응」, 『유아교육학논집』 18(6), 333~361면
- 김세원, 이정은, 정익중, 장화정(2014),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6, 25-56면.
- 김세철(2007), 「남명 조식의 경, 의 사상과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7(1), 5-46면.
- 김영숙(2012), 「남명의 실천 사상이 유아교육과정에 주는 함의」, 『남명학연구』 42, 243-265면.
- 김이영(2015),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136-153면.
- 남명학연구소(역, 2001), 『남명집』, 조식(저), 한길사.
- 사재명(2000), 「남명 교육과 학파의 계승-개인차 중시」, 『교육철학』 18, 148면 참조.
- 사재명(2002), 「조선중기 남명학파의 교육: 자득 강조의 계승」, 『교육학연구』 40(2), 17-34면.
- 사재명(2005), 「남명 조식 교육의 계승-실천성의 강조」, 『남명학연구』 19, 285면
- 서석원, 이대균(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2), 35-158면.
- 서현, 임지윤, 박미자(2013), 「유아교사의 바람직한 인성에 대하여 예비유아교사와 현직유아교사의 인식비교」, 『한국영아보육학』 77, 41-47면
- 오경희(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아기 인성교육에 관한 탐색: “돌봄”의 특성을 중심으로」 17(4), 『유아교육학논집』 323-347면.
- 양진희(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9(5), 419-447면.
- 우덕례(2014), 「만 5세 유아의 가정환경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의사결정력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139-162면
- 이승환(2012). 남명 「학기도」 자도설 비정, 『철학연구』 46, 84-120면.
- 장덕삼(2002), 「남명사상의 교육방법론적 고찰」, 『한국교육사학』 24(1), 235-251면.
- 장영준(1990). 「남명선생의 이학조예와 인격성취」, 『남명선생 언행 총록』, 김해문화원:재인용 김영숙(2012), 255면.
- 정낙찬(2002), 「남명 교육방법론의 현대교육적 의미」, 『남명학』 11, 143-190면.
- 조식(2001), 『南冥集』 남명학연구소(역, 2001).

- 채휘균(1999), 「남명의 경의사상과 교육」, 『교육철학』 17, 305-320면.
- 채휘균(2001), 「남명의 경과 의 교육사상」, 『남명학』 9, 199-248면.
- 최미숙, 송순옥(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5(1), 313-332면.
- 최예린(2011), 「그림책에 묘사된 아버지 양육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2(2), 1-23면.
- 최정혜(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1), 421-433면.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2015), 「어머니-아버지간 아버지 양육참여 지각차이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관계: 부부갈등, 우울,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1), 153-174면.
- 최효식, 연은모(2014), 「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면.
- 한상규(2001), 「남명 敬, 義의 교육철학적 이해」, 『남명학』 12, 95-141면
- 한상규(2006), 「남명학 강의: 남명교육사상의 이해(2)」, 『선비문화』 9, 83-92면.
- 허권수(2001), 「절망의 시대, 선비는 무엇으로 사는가?-실천의 사상과 남명 조식광의 만남」, 『한길사』.
- 허권수(2006), 「동아시아 학술과 남명학: 근기 남인학자들의 남명에 대한 관심」, 『남명학연구』 22, 236-238면.
- Cox, M., Owen, M. T., Henderson, V. K., & Margand, N. (1992), The prediction of infant-father and infant-mother attach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74-483.
- Lamb, M. E. & Tamis-LeMonda, C. S. (2004), The role of th father: An Introduction.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4th. ed.). N.Y.: Wiley.
- Parke(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43-58.
- Olson, Lopez-Duran, Chang & Sameroff(201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early peer aggression: Integrating contributions of self-regulation, theory of mind, and parent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1), 253-266.
- Parke, R. (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43-58.

중등교육연구 제28집 (2016년), pp. 135-155.

Prutt, K. D. (2000), *Fathernee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NY: Free.

Ramani, Brownell, & Cambell(2010), Positive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 3- and 4-year-olds in relation to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1(3), 218-250면.

Schindler, H. S. (2010), The importance of parenting and financial contribution in promoting fathers'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318-332.

Wilson, K. R., & Prior, M. R. (2011), Father involvement and child well-being. *Journal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47(7), 405-407.

Abstract

The implications of Nammyeong's Practice Ideology on the Parenting-Attitudes of Young Children in Nammyeong literatures

Jeong-Hye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olve the problems of child-battering happened by their parents through the reviewing of Nam-myeong's literatures and educational viewpoint for taking care of our children. Nam-myeong is the most famous scholar in the Choseon dynasty and his educational pensee is highly noble and ideal for the education of our children. It will provide the righteous solution for the contemporary parents who hav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yong-eui ideology with established practice can lead for the children to develop their self-control ability and influence to do the good-natured behavior

Second, daily-life practice of Nam-myeong can be applied to teach their children how to solve the problems starting from the easy question to difficult one, which is well agreed with their degree of cognitive development.

Third, mind-control practice of Nam-myeong is applicable for our children to do the things in everyday life with harmony, responsibility, right attitude, sleek and clean.

In conclusion, it can be expected that educational viewpoint of Nammyeong is effectively applicable to contemporary parents who hav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in our modern society.

Key words : Nam-myeong, Nam-myeong's literatures, Practice Ideology, Parenting-Attitudes of Young Children

논문 투고일: 2016. 09. 08.

심사 완료일: 2016. 10. 08.

게재 결정일: 2016. 12. 10.